

“무료 환승입니다”... 대구-경산-영천, 공동생활권

광역 환승시스템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진행 8월 13일 시범운영 거쳐 20일부터 운행 시작 경산·영천교통 등 운수업체간 적극 협력 약속

경산시(시장 최영조), 대구시(시장 권영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대중교통 광역 무료 환승추진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갖고 광역 환승시스템 구축사업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4일 '대구시-경산시-영천시'간 대중교통 광역 무료 환승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시작됐다.

이후 여러 회의를 갖고 환승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폈고 7월23일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최종보고회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됐다.

대중교통 광역 환승 사업은 인근 지자체 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통한 거시적 발전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됐다.

그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대구도시철도공사 및 대구시 버스조합, 코리아와이드 대화, 경산버스, 영천교통 등 관련 운수업체 간에도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돼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산시 경제환경국장, 대구시 버스운영과장, 영천시 도시건설국장,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호 간 의견 교환과 함께 추진경과보고를 가졌다.

광역 환승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사업 완료 후의 관리비를 포함 약 8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 중이다.

향후 시스템 안정화 등을 거쳐 8월 13일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 8월 20일 본격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중교통 광역 환승이 추진됨에 따라 광역권 교통망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간 상호 교류 확대에 경제공동체가 이뤄져 도시 간 상생의 시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는 2009년부터 대구시와 무료 환승제를 시행해 대중교통 신규 수요 창출과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를 실현한 경험이 있다.

영천시에서도 광역 환승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용역을 버스과 지하철로 구분에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시스템 안정화 등을 거쳐 다음달 13일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 20일 본격 운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대중교통 광역 환승 시행을 위해 영천시는 대구시, 경산시와 상이한 버스요금을 시범운행일이 맞춰 모두 단일요



경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금으로 조정하게 된다.

영천시는 그동안 수차례 실무협의와 대구도시철도공사 및 대구시 버스조합, 코리아와이드 대화, 경산버스, 영천교통 등 관련 운수업체간에도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돼 왔다. 구본태 영천시 도

시건설국장은 “대구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간의 공동생활권 형성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확대를 기대한다”며 “광역 환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성탁 기자 sking12@meconomynews.com

환경오염 꼼짝마! 사업장 집중 단속



반복 위반 사업장 단속 장면 사진제공=군위군

군위군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위반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관내 민원 다발 및 환경법령 반복위반 배출사업장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기준 초과시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야간 불시단속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영만 군수는 “하반기에도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예방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유도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탁 기자 sking12@meconomynews.com

대구치맥페스티벌 열기, 태풍 ‘다나스’도 못 꺾었다

총 135개 업체·255개 부스 참여 1800여 명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유망축제’로 선정된 2019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여름엔 치맥은 확실한 행복! 가지 치맥의 성지 대구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1일 폐막했다.

두류공원 일원에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개막 첫날인 지난 17일 첫 날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뜨거운 열기속에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축제기간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다나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대구치맥페스티벌의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치맥축제에는 135개 업체 255개 부스가 참가했으며 국내 대표 여름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40여 개의 치킨 업체와 수제맥주 6개 브랜드

를 포함한 11개 맥주 브랜드가 참가해 치킨과 맥주의 다양화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 축제 자원봉사자인 치맥프렌즈 300명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했을 뿐 아니라 특색 있는 크리닝 타임을 연출해 축제를 즐기면서 환경도 생각하는 특별한 축제문화를 조성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치맥열차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메인 행사장인 두류 야구장에는 글로벌 존도 운영해 1800여 명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치맥축제에는 다양한 사전 예약 서비스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사전 예약 서비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사전 예약 식음존’이다. ‘사전 예약 식음존’은 메인 행사장내 일



치맥 행사 장면 사진제공=대구시

반 식음존 2,500석 가운데 200석 정도를 배정해 유료로 사전 판매하였으며 치맥 축제를 즐기려는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어 모든 좌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라운지’와 ‘글로벌존’도 100% 매진을 기록해 다양한 사전 예약 서비스가 치맥페스티벌 흥행성공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올해 치맥축제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약 24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90억

원, 고용유발효과 15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범일 2019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태풍 등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치맥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아온 관람객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daily1220@meconomynews.com

“우리동네 ‘착한가게’ 찾습니다”

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1일부터 19일까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도 지역평균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하며, 신규 모집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커피숍, 목욕탕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이내에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신규지정에서 제외시켰다.

신규지정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평가 후 지정여부가 확정되며, 지정 후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업소 방역, 쓰레기봉투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최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윤종진 KT홍보실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경북형 IT 특화지역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3개 기관이 IT분야 선도기업인 KT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내 창업·주거·교육 공간 등에 청년 친화적 IT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유입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며 체결됐다.

한편, 이번 협약식을 기념해 경북도청 1층 로비에 청년주거 공간에 적용할 KT의 첨단기술 시연회가 함께 열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 경북도청 어린이집 원생들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5G 기술들을 몸소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강성탁 기자 meconomynews.co.kr

울릉군 공이 있는 친환경 건설

www.ulleung.go.kr

울릉공항 건설 확정!

안전하고 편안한 하늘길 조성!
아름답고 신비로운 섬 울릉도가 가까워집니다!